

대학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구조

Attitude of Student to the Postgraduate Education in Medical Field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성호경·김 전·박 준·신동훈

緒 論

우리 나라에서도 高級頭腦를 自力으로 養成하는 것이 人類文化에 공헌하는 길임은 물론이거니와 國民福利를 위하여도 切實한 命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産業, 行政, 教育 등 여러 분야에서 남의 것을 빌려온 移植文化에 安住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莫甚한 不經濟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醫學教育에서나 醫療人力의 活用制度에 있어서 無批判적으로 남의 것을 모방해 온 結果는 福祉社會 建設을 目標로 하고 있는 國家施策에도 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醫療人力 活用面에서도 그러하리니와 醫學 研究面에서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으며 研究·教育風土의 刷新과 制度의 改善 없이는 앞날을 밝게 내어다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卒業後 醫學教育(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에 큰 混亂을 빚은 이유는 大學院에서의 學位課程과 綜合病院에서 主管하는 專門職修練課程이 併立하면서도 그 사이에 아무런 體系的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各其 30년과 20년의 長久한 歲月을 보낸데에 있다. 이들 두 課程은 目的도 다르고 教科內容도 다른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醫科大學 卒業生이면 大部分이 兩者를 다 履修하려고 하고, 또 現在에도 履修中에 있다. 그러한 점이 不合理하다는 것은 두차 지적되어 그 是正이 建議되었으나 아직도 實踐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大學院教育에서도 다른 어떤 水準의 教育에서와 마찬가지로 學習의 主體는 院生들이며 그들은 專門領域에서 이미 一家見을 가지고 있는 層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意見이 大學院 教育에 最大限으로 반영되어야 함은 再言할 필요조차 없었으며 其間에 여러 研究者들의 設問(문교부, 1974; 김인순, 1980)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醫學系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거나 단편적인 사항에 국한된 감이 있다.

이 研究에서는 大學院生들에게 制度上·教科運營上·支援與件의 評價 등 廣範圍한 意見을 물어서 矛盾點을 露出시키고 改善에 대한 當事者들의 意見을 集約시키려는 것이다.

研究 方法

서울에서 國立과 私立大學을 各各 1대학, 또 地方에서 國立大學을 1個校 選定하여 이 3個 大學에 400매의 設問紙를 보내어 기재한 후에 回收하였다.

對象學校를 임의로 선정하고 各學校內에서 設問紙를 보낸 對象은 無作爲의으로 하였다. 다만 碩·博士課程中的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도록 留意하였다.

設問內容은 後述하는 바와같이 大別하여 制度改善에 대한 것, 運營改善에 대한 것, 支援與件에 대한 評價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合하여 10개의 項目으로 되어 있다.

기재된 設問紙를 回收하고, 反應을 課程別로 分析하였다. 回收된 것은 145部이어서 發送된 것의 36%로서 아주 좋은 便은 아니나 他人에서의 應答率에 比하면(문교부, 1974) 나쁜 것도 아니다.

設問과 應答

1. 第1問項은 다음과 같다. 즉,

1) 대학원과정들 밟는 가장 큰 동기는

가. 진리탐구를 위하여

나. 교수가 되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다. 전문직업에 학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라. 사회적 승인을 받는 이점 때문

마. 진료에 유리한 간판이 되므로

바. 남들이 하나까

사. 기 타

* 이 논문은 1980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應答內容은 다음 第1表와 같다.

第1表. 大學院 學位課程에 進學한 動機

과정별 응답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수	%	수	%	수	%
가. 진리탐구	4	4	2	4	6	4
나. 교수지망	16	17	14	27	30	21
다. 전문직업	30	32	13	25	43	30
라. 사회적	10	11	3	6	13	9
마. 진로간판	6	6	8	16	14	10
바. 남들따라	25	27	9	18	34	23
사. 기타	3	3	2	4	5	3
계	94	100	51	100	145	100

應答를 보면 大學院 學位課程에 進學한 動機의 半 가까이는 學問研究나 教授職 志望과는 無關한 것이었다. 남들이 하기 때문에 落伍하기 싫어서 進學하는 消極的인 태도가 23% 즉 4분지 1에 가까운 것은 일대 경종을 울려야 마땅한 일이다. 功利를 초월한 眞理探究의 열의가 少數에서만 보인다.

2. 第2問項과 應答는 다음과 같다.

應答에서 오전 8~오후 6시 것, 즉 日課活動에 관한 것을 第2-1表와 第2-2表에, 또 夜間 즉 오후 7~오후 10시 것을 第2-3表와 第2-4表에 실었다.

晝間 즉 日課活動을 보면 두 課程에서 모두 많은 大

2) 平日에 時間을 費下는 어떻게 割愛하고 있는가 (해당%에 ○표)

과목공부 (세미나, 강의 학부학생지도)	오전 8~오후 6시					오후 7~오후 10시				
	%					%				
	20	40	60	80	100	20	40	60	80	100
연 구 (도서관 포함)										
진 료										
기 타 (아르바이트등)										

學院生들이 大部分의 時間을 患者診療에 專念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碩士課程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少數의 人員이 짧은 時間을 敎科目學習이나 研究에 割愛하고 있다.

夜間活動은 비교적으로 分散되어 敎科目學習에도 專念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나 이 때에는 副業등「기타」時間이 增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第1圖에 日課時間을 科目工夫·研究·診療 및 其他活動에 配定하는 率을 總體的으로 나타내었다. 例컨대 2인이 70%의 時間을 연구에 소비하면 $2 \times \frac{70}{100} = 1.4$ 로 나타내는 식으로 계산하여 全人員의 것을 合算한 것이다. 따라서 縱軸의 數字는 비교적인 무게(Weight)

第2-1表. 碩士課程生의 日課活動時間 配定

활동구분	%	학교별									
		20	40	60	80	100	20	40	60	80	100
과목공부(세미나, 학생지도 포함)	A 교	1	4	4	1	1	1				1
	B	5	3	2							
	C	3		1	2	2	3	1			
연 구(도서관포함)	A	1	2		1	2	1	1			
	B	2	1								
	C	1		3	1	1	1				2
진 료	A				4		2	3	2	31	
	B				1	2	2	4	3	11	
	C			1	1	3	2	1	3	4	16
기 타(아르바이트등)	A	1									
	B	1					1				
	C				1						

A.....서울 국립

B.....서울 사립

C.....지방 국립

第2-2表. 博士課程生の 日課活動時間 配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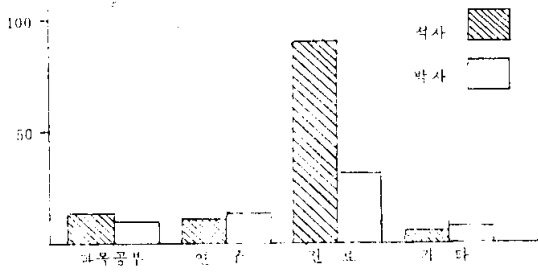
활동구분	학교별	%	20		40		60		80		100
과목공부 (세미나, 학생지도포함)	A	1	3	2	1	1	1				
	B		1			1					
	C		1	3	1	3	1	2			
연구 (도서관포함)	A	1	1		1	3			1		
	B				1						
	C		3	1		1	2			4	1
진료	A			1	1	2	1	2	2	1	7
	B				1	1			2		6
	C	1	1	2		3		1	2		3
기타 (아르바이트등)	A	2		1							
	B										
	C	1		2				1	1		

第2-3表. 碩士課程生の 夜間時間活用狀況(오후 7~오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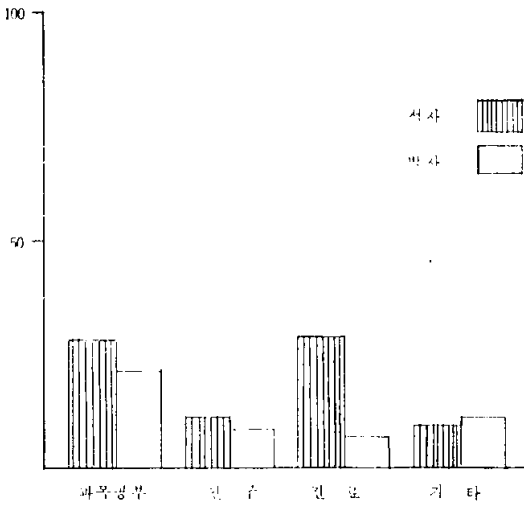
활동구분	학교별	%	20		40		60		80		100
과목공부 (세미나, 학생지도포함)	A	1	5		2	7	2				2
	B	2	3			2			1		
	C	2	4		3	5	7	3	2		4
연구 (도서관포함)	A		2	3		2	1				2
	B	4									1
	C		3		2	1	5				
진료	A	1		1	1	3		1	4		5
	B		1						1		12
	C		1		1	1	3		1		1
기타 (아르바이트등)	A	1	1	2		2					
	B					2	1	1	2		1
	C		2		1	1	1				1

第2-4表. 博士課程生の 夜間時間活用狀況(오후 7~오후 10시)

활동구분	학교별	%	20		40		60		80		100
과목공부 (세미나, 학생지도포함)	A		4	2		1	3				4
	B	1				1					2
	C		2		1	1	2	2	5	1	3
연구 (도서관포함)	A		2	3	1	1	1				4
	B		1						1		
	C				1	2					
진료	A			1	1	1	1				
	B										4
	C										1
기타 (아르바이트등)	A	1				1		1	2		5
	B								1		
	C		1	1		1		1	1		



第1圖. 일과시간 활용상황(중축은 비교적인 무게를 나타냄, 본문 참조).



第2圖. 야간 시간 활용상황(중축은 비교적인 무게를 나타냄).

를 나타낸다.

第2圖에는 夜間에 어떻게 時間을 利用하는가를 나타내었다.

이 문항에 대한 應答에는 基礎醫學을 專攻하는 院生들 것도 끼어있어 이들이 科目工夫나 研究에 많은 時間을 割當하고 있다. 그것을 빼고 單純히 臨床醫學을 專攻하는 大學院生의 것만을 分離하면 患者診療業務의 比重은 더욱 커질 것이다.

3. 第3問項과 이에 대한 應答은 다음과 같다.

3) 과목공부나 연구에 가장 큰 애로는?

- 가. 학비나 생활비 곤란
- 나. 연구비가 없어서
- 다. 지도교수의 개인지도 부족
- 라. 타업무(병원진료업무 포함)

大學院의 正規課程生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가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하여 診療業務의 重壓을 호소하고 있다. 全體적으로 보아서는 56%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學費, 生活費나 研究費不足을

第3表. 大學院課程에서 겪는 애로事項

과정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수	%	수	%	수	%
응답						
가. 학비·생활비	18	19	11	23	29	20
나. 연구비	11	12	10	20	21	15
다. 지도	5	6	2	4	7	5
라. 타업무(진료등)	57	61	23	47	80	56
마. 불응답	2	2	3	6	5	4
계	93	100	49	100	142	100

第4表. 職業專門博士學位에 대한 意見

과정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수	%	수	%	수	%
응답						
찬성	61	65	27	53	88	60
반대	25	26	21	46	46	32
모르겠다	8	9	3	6	11	8
계	94	100	51	100	145	100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은 診療業務의 重壓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4. 第4問項과 應答은 다음과 같다.

4) 전문의 수련교육을 대학원과정으로 보고 전문의에게 최소한도의 추가학점취득과 논문통과를 조건으로 "임상박사" 혹은 "과외과박사"(例) 등 전문직업학위를 주는 제도가 바람직한가?

찬성 _____ 반대 _____ 모르겠다 _____

前記 第1問項과 第2問項에 대한 應答으로도 판단되는 바와 같이 現在대로 學問 學位課程과 專門醫修練課程을 同一人이 履修하는 데에는 큰 無理가 있다. 차라리 數世紀 동안 이어 온 專門職業의 傳統을 살리고 外國潮流에도 맞출 수 있게끔 職業專門博士課程을 新設하여 從來의 2個課程을 統合하는 데에는 大體로 贊意를 表하고 있으나 碩士課程에서와 博士課程에서는 贊成의 熱度가 다르다. 前者에서는 두 課程의 差別로 인하여 苦難을 겪는 渦中에 있고 博士課程에서는 그 時期를 벗어나서 多少의 餘裕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全體적으로 보면 2對 1의 比率로 贊反에 差異가 있음은 注目할 일이다.

5. 第5問項과 應答은 다음과 같다.

5) 전문직업학위(예: 임상박사)코스를 만들고 전문

第5表. 研究을 위한 派遣

과정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수	%	수	%	수	%
응답						
찬성	49	52	21	42	70	49
반대	38	40	28	56	66	46
모르겠다	7	8	1	2	8	5
계	94	100	50	100	144	100

의 수련과정과 병행한다면 무의존동원이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6개월간(1학기) 기초과학교실(공대, 자연대 등 교실포함)이나 연구기관(해외포함)에 파견근무하는 것에

찬성 _____ 반대 _____ 모르겠다 _____

最近까지는 修練醫들이 6個月間 소위 無醫村에 派遣勤務를 해 왔으나 향후 이 제도는 폐지된다. 그것을 前提로하고 職業專門 博士學位課程이 생길 때에 研究機關에 가서 研究에 專念하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人士들이 적지 않아서 마음 든든히 여기는 바이다. 美國의 극히 一部大學에서 臨床醫學에서도 PhD과정이 있는 곳이 있으나 그 곳에서는 一定期間을 基礎醫學教室에 가서 修學토록 하는 예를 따른 方式이다. 그리하여 研究할 수 있는 資質을 涵양한다는 것은 앞으로 先導的 役割을 할 臨床醫에게도 큰 強點이 될 것이다. 이 應答에서 보면 碩士課程에서와 博士課程에서 相反되는 態度를 보이고 있어 學門의 幅이 갈수록 좁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6) 第6問項은 다음과 같다.

6. 현재 진행중인 연구나 앞으로 수행할 연구과제는

I)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선택할 경우에

- 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겠는가
- 나. 지도교수가 시키는대로 하겠는가

II) 다전공(기초교실포함)의 힘을 빌어서 하고자 할 경우

- 가. 지도교수가 권장한다고 생각하는가(여·부)
- 나. 원하는 다전공과목을 몇 개 수강할 용의까지 있는가(유·무)

研究의 자유에 관한 問題인 바 碩士課程에 進學한지 日淺한 사람에게는 생소한 질문일런지 모르겠다.

I. 즉 자기의 專攻에 局限된 研究를 할 때에 自身이 하고 싶은 研究를 하겠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103名중 71%가 그렇다고 應答하였고 指導教授가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數字가 42名 중 29%를 보일 뿐이어서 大學院生들의 研究에 대한 進取性을 보이고 있다.

II. 즉 他專攻과 관련된 研究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에 대한 指導教授의 態度를 물은 데에 대하여 67名 有效應答 128名의 52%는 「권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7名 중 21%는 否定的으로 보고 있으며 34名 중 27%는 可否間의 판단을 하지 못하여 問題가 미묘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전공에 관련된 研究를 할 때에 자기의 主專攻이 아닌 他專攻科目을 受講할 用意이 있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有效應答者 126名中에서 37%인 47名이 肯定的이었고 比等한 數字인 48名, 즉 38%는 否定的이었다. 태도를 留保한 사람의 數는 25%인 31名이어서 積極的인 贊成率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運營如何에 따라서는 고무적일 수도 있겠다.

7) 第7問項과 이에 대한 應答은 다음과 같다.

7. 학위를 취득후에 대학교육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가 많을 것이므로 대학원 교과과정에 “의학교육”에 관한 과목을 필수로 넣을 것인가.

가. 반드시 넣을 것

나. 넣는것이 좋다.

다. 모르겠다

라. 필요없는 것 같다.

第6表. “醫學教育”科目

과정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수	%	수	%	수	%
응답						
가. (반드시)	21	22	7	14	28	19
나. (좋은편)	42	45	33	64	75	52
다. (모르겠다)	11	12	4	8	15	10
라. (불필요)	20	21	7	14	27	19
계	94	100	51	100	145	100

大學院의 學問學位課題에 進學한 사람들은 많은 수가 教授職을 희망하고 있다.

第1問項에 대한 應答을 보면 21%가 教授職을 희망하였고 특히 博士課程生은 적어도 27%가 教授職을 바라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全體應答者의 19%가 醫學教育에 대한 教科目を 반드시 넣을 것을 바라고 있다. 52%는 넣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意見을 보이고 있다. 합하면 71%라는 高率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博士課程에서는 78%의 압도적인 贊成을 받고 있다.

醫學教育에 대한 素養이 새삼 切實하게 느껴지는 答은 이들이 앞으로 教授職을 바라고 있는 것도 그 理由의 하나이기는 하나 또 이들이 日常業務를 통하여 學部學生들의 教育에 從事하고 있음으로 因하여 職業

教育上의 理論과 實技를 必要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8) 第8問題와 이에 대한 應答은 다음과 같다.

8. 대학원 과목성적 평가에서 A+A₀……등 제도대신에 Pass or Fail제도가 좋은가

좋다 고칠필요없다 모르겠다

第7表. Pass or Fail 評價制度

과정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수	%	수	%	수	%
응답						
P/F 찬성	56	59	28	56	84	58
반대	25	27	15	30	40	28
모르겠다	13	14	7	14	20	14
계	94	100	50	100	144	100

大學院의 科目成績을 評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細分한 差等을 매길 때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大學院授業등을 맡고 있는 敎授나 學生들이 빈번히 느끼는 바이다. 또 大學院 敎科運營은 小集團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으므로 지나친 競爭은 協調精神을 蠶食할 뿐아니라 때로는 非學問的인 作態까지 빚어낼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調査에서 58%가 Pass or Fail制度를 支持하는 것은 充分히 理由있는 일로 解析된다.

9) 第9問項과 이에 대한 應答은 다음과 같다.

9. 도서관 연구시설에 대한 만족도(V표)

과정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수	%	수	%	수	%
응답						
극히만족	1	1	0	0	1	1
비교적만족	10	11	11	22	21	14
보통	21	22	17	33	38	26
약간불만	29	31	14	27	43	30
극히불만	33	35	7	14	40	28
불응답	0	0	2	4	2	1
계	94	100	51	100	145	100

第8表. 圖書와 研究施設

A. 도서관

과정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수	%	수	%	수	%
응답						
극히만족	1	1	0	0	1	1
비교적만족	10	11	11	22	21	14
보통	21	22	17	33	38	26
약간불만	29	31	14	27	43	30
극히불만	33	35	7	14	40	28
불응답	0	0	2	4	2	1
계	94	100	51	100	145	100

B. 연구시설

과정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수	%	수	%	수	%
응답						
극히만족	0	0	0	0	0	0
비교적만족	3	3	7	14	10	7
보통	15	16	4	8	19	13
약간불만	28	30	14	27	42	29
극히불만	44	47	24	47	68	47
불응답	4	4	2	4	6	4
계	94	100	51	100	145	100

圖書에 관한 滿足度는 中以下라 볼 수 있다. “약간 불만과” “극히불만”을 합치면 58%이므로 더욱 充實한 圖書支援이 바람직하다. 研究施設에 대한 不滿은 度를 더하여 76%에 이르고 있어 거의 限界點에 이른 감이 있다. 大學院支援政策이 具體化하는 날에는 이와같은 취약점부터 補強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 第10問項과 이에 대한 應答은 다음과 같다.

10. 귀하의 전공분야를 중심으로하여 우리나라 의학이 선진 각국의 의학수준에 비하여

- 가. 같은 수준
- 나. 거의 따라가는 수준
- 다. 뒤진 수준
- 라. 모르겠다

상기문항중 (나-라)가 해당된다면 뒤진 이유중에서 으뜸가는 것은

- 가. 연구열세
- 나. 진료분야열세
- 다. 의료진달체제미비

第9表. 우리나라 醫學水準에 대한 評價(先進國 對比)

과정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수	%	수	%	수	%
응답						
가. 같은수준	1	1	2	4	3	2
나. 거의같은	36	38	15	29	51	35
다. 뒤졌음	42	45	29	57	71	49
라. 극히뒤졌음	12	13	4	8	16	11
마. 모르겠다	3	3	1	2	4	3
계	94	100	51	100	145	100

落後原因

과정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수	%	수	%	수	%
응답						
연구열세	55	67	39	76	94	71
진료열세	10	12	2	4	12	9
진달체제미비	13	16	5	10	18	13
모르겠다	4	5	5	10	9	7
계	82	100	51	100	133	100

앞으로 우리나라의 醫學界를 發展시킬 잠재적인 主人公인 大學生들은 現在의 우리들의 醫學水準을 先進外國에 比하여 거의 같은 水準이거나(35%) 或은 若干 뒤진 수준(49%)으로 보고 있다.

碩士課程生이 博士課程生보다 더욱 樂觀的인 것이 印象의 이다.

落後한 점이 있다면 그 理由로 으뜸가는 것은 「研究 劣勢」로 보고 있다. 이점은 博士課程生이 더 強하게 呼訴하고 있다.

結 論

本研究은 制限된 範圍內的 調査에 기초를 둔 것이기 는 하나 다음과 같이 大學生들의 意見을 集約시킬 수 있다.

1. 大學院進學의 動機는 非學究的인 要素에 支配되는 점이 많다.

2. 卒業後教育의 二元制 즉 學問學位課程과 專門醫 修練課程의 併立으로 混亂을 거듭하였으며 大部分의 院生들은 患者診療의 業務過多로 學位課程의 日課를 희생시키고 있다.

3. 學位課程履修에서 겪는 가장 큰 隘路는 診療業務 過多이고 그 다음으로 學費와 生活費의 不足이다.

4. 卒業後教育의 二課程을 統合하여 하나의 職業專 門學位課程으로 統合하는데에 贊成한다.

5. 職業專門 學位課程이 新設되면 그 課程에 在籍하 는 동안 1學期間 基礎科學教室이나 研究所에서 研究에 專念하는데 대하여 原則적으로 贊成한다.

6. 大學院課程에서 研究의 自由는 있다고 보나 경우 에 따라서는 指導教授의 同意를 얻는데에 微妙한 점이 있다.

7. “醫學教育”에 관한 科目을 履修시킬 必要가 있다

8. 成績의 評價는 Pass or Fail System의 採擇을 바 란다.

9. 圖書과 研究施設에 대하여는 不滿이 많고 특히 後者의 경우 더욱 甚하다.

10. 우리나라의 醫學水準은 先進諸國에 比하면 거의 같거나 或은 若干 뒤진 것으로 評價된다. 가장 落後된 점은 “研究面”이다.

—ABSTRACT—

Attitude of Student to the Postgraduate Education in Medical Field

Ho Kyung Sung, Jun Kim, Joon Park and Dong Hoon Shin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The attitudes of the medical graduate students to the postgraduate education were surveyed for 145 randomly sampled students who are taking courses in 3 medical graduate school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10 items which were divided under three heads, namely, to improve current educational system, to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to strengthen the supporting measures.

Although the survey was not an extensive one, the responses revealed following views:

1. The motives for the advanced studies were not necessarily originated from the academic ground.

2. There are two different postgraduate courses in this country, namely the training course for the clinical specialty and the advanced academic course in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leading to the higher degrees.

Many of medical graduates are taking two courses at the same time and it results in a tremendous difficulty especially in the degree course because of their heavy duty in the clinical discipline.

3. A combined course is desirable instead of two separated courses in the postgraduate educational system.

4. That combined course will be a professional degree course which will be offered to the clinical field and it will concern with the professional competence as well as the academic capability. Part of the course will be covered by the research activities in the basic science departments or some research institutes.

5. Sometimes the freedom of academic activity has been restricted by the domination of the advisor's

choice.

6. Pass or fail system is more desirable than any other evaluation systems for their performance.
7. There are widespread dissatisfaction for the library and research facilities and the complaint for the latter is louder than for the former.

金駟舜, 醫學博士學位制度. 大韓醫學協會主催 醫學教育發展에 관한 워크샵. 1980.

文教部 教育政策委員會 高等教育 分科委員會. 韓國大學院教育的 質的向上方案. 1974.

申東薰, 醫學博士學位論. 대한의학협회지, 22: 589, 1979.

參 考 文 獻

崔圭完·申東薰·尹鳳子, 醫學科大學院教育的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인간과학, 4: 749, 1980.